

#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언론중재위원회  
2010 정기총회 개최

2010 **03**

# C O N T E N T S

2010. March. Vol 117



03	이달의 주요뉴스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04	인터뷰	"정통성과 권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06	위원단상	언론매체산업의 위기와 뉴스의 품질 (이광재 부위원장)
07	직원마당	아내의 빈 자리 (김주용 정책연구팀 차장)
08	기고	알 권리와 인권, 그 말의 성찬에 관하여 (양재규 조사팀장, 변호사)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아카데미와 캐서린 비글로
10	용어해설	조정불성립결정
11	고충처리인 탐방	중앙일보 서명수 고충처리인
12	위원회 소식	
13	사건 처리현황	
14	위원등정	



발행인 권성 편집인 김용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일 2010년 3월 25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397-3114, 3000 FAX 397-3069 www.pac.or.kr 편집 (주)노마드월드와이드 인쇄 (주)부광프린팅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선출



## “언론피해 구제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에는 총 40명의 중재위원이 참석해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 예산안, 2010년도 운영위원과 시정권고위원 선출안을 각각 처리했다.(선출위원 명단 하단)

권 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낸 양적 성장에 걸맞게 언론피해 구제의 질적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보도의 위치와 크기 등을 격상시키는 한편, 실질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도 손해배상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법원의 소송결과 내려지는 손해배상 판결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결과보다 훨씬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가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명단

운영위원(9명)	권 성 위원장, 이광재 부위원장(경기중재부), 조원철(서울제6중재부), 장하용(서울제6중재부), 이진구(부산중재부), 권태인(대구중재부), 김용욱(광주중재부), 차재영(대전중재부), 이효성(충북중재부)위원
시정권고위원(7명)	권 성 위원장, 윤 구 부위원장(서울제4중재부), 안병준(서울제1중재부), 김정탁(서울제3중재부), 이성훈(서울제4중재부), 한균태(서울제5중재부), 임경록(서울제6중재부)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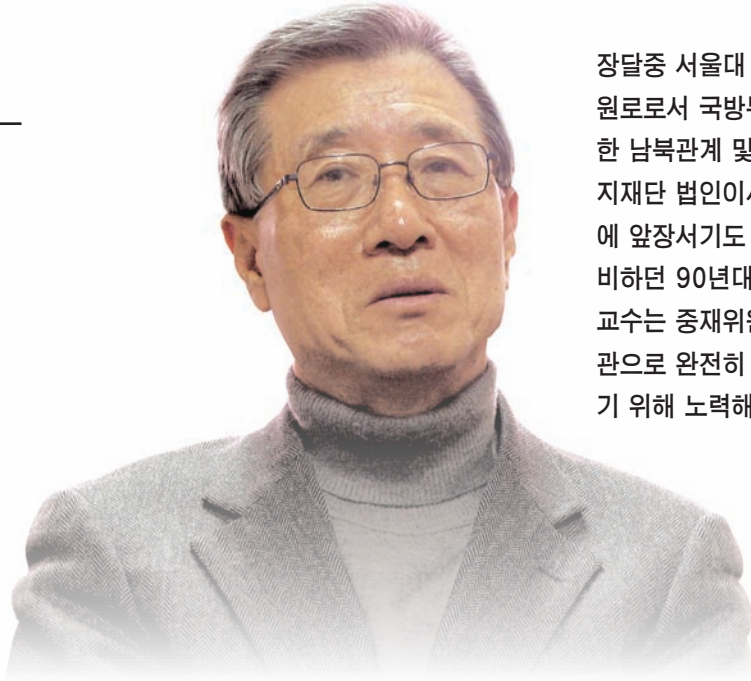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정통성과 권위를 갖추기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미국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졸업(정치학 박사)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현)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한민족 복지재단 법인이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서울제1중재부, 1992. 12. ~ 1997. 8.)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학계의 원로로서 국방부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전문가이며, 한민족 복지재단 법인이사 등을 맡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약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에 중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 교수는 중재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조정기관으로 완전히 정착하도록 정통성과 권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자 주>

## 교수님께서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때는 민주화와 함께 언론 자유가 크게 신장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죠.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초기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언론사가 별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언론을 견제했고, 언론사가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 요즘은 언론사들도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중재위원회에서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발전을 이룬 거죠. 저는 중재위원회에서 법조인 출신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주니 언론사도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재위원회가 여론의 합리적 절충 내지 타협을 촉매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금은 중재위원회의 권한도 크게 강화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정통성(legitimacy)이 있어야 해요. 언론사와 신청인 모두에게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위상과 권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겠죠.

## 교수님께서 주로 연구하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저는 초기에는 한국과 제3세계의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엔 한·일간의 비교정치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남북관계를 주로 연구했죠. 최근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동북아 시대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정한 원칙을 갖고 북한을 대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반대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모든 민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 북한 어린이 돕기 등의 사업에 열정을 갖고 임한 적도 있지만, NGO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께서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정년퇴임이 3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어요. 제가 한 때 건강을 잃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의사가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저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좀 더 책임감 있게 정확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듯, 좀 더 노력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통성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중재위원회가 말하면 사회가 듣는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신기, 박명, 신화, 배용준, 이병헌, 이영애... 일본이나 중국, 멀리서 이란의 한적한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한류(韓流) 스타들이다.

1990년대 동남아에서 발생해 일본에서 명위를 떨치고 있는 한류는 그러나 조용필, 김연자, 이미지를 앞서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멀리서 변한시대, 또는 백제시대의 문물이 일본에 전해지고, 근자에는 조선시대의 통신사들이 일본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도 문화사적 의미에선 한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중문화 측면에서의 한류는 일제강점기 이애리수의 성공이 그 시작이었고, 이애리수 이후 한류는 붓물 터지듯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

192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이애리수는 <황성의 적(황성옛터)>, <메리의 노래> 등을 히트시키며 가요 대중화의 초석을 닦은 여가수로, 한·일을 오가며 활동한 한류스타 1호였다. 빅터레코드에 <달의 행방(月のゆゑ)>, <덧없는 사랑(あだなきけ)> 등을 취입하며 일본에서 대성공, 한류의 문을 열었다.

물론 이애리수에 앞서 채규엽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하세가와 이치로(長谷川一郎)라는 예명으로 데뷔했다.

그는 1932년 콜롬비아 레코드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심(戀心)>, <언덕의 석양(丘の夕陽)> 등을 취입해 대성공을 거뒀고, 당대 최고의 여가수 아와야 노리코(淡谷のり子)와 함께 아리랑, 방랑가를 녹음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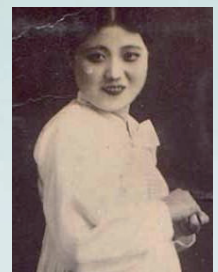
<길 잃은 꾀꼬리>로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떠오른 강석연 역시 일본에서 이애리수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 한·일서 모두 히트한 <남대문타령(戀の南大門)>을 비롯, <사랑스런 연기(いとしきけむり)> 등이 대표곡이었다.

특히 강석연이 불러 전국민적 파장을 몰고 온 <방랑가>는 이듬해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후 채규엽이 일본어로, 다시 일본가수 아마모토 토키오(山本時夫)가 리메이크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애리수, 채규엽, 강석연의 이전 노래들이 일본에서 주목받는 정도였다면 이 <방랑가>는 경음악으로까지 편곡되는 등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한류가요인 셈이다. “피 식은 젊은이 눈물에 젖어 낙망과 설움의 병든 몸으로”로 시작하는 방랑가는 식민지 조선 젊은이들의 패배주의와 울분이 잘 드러난 곡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는 최고의 인기곡으로 군림했던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 여명기의 한류(韓流) 1

김문성(법무상담팀 차장)



▲ 이 애리수



▲ 강석연

# 언론매체산업의 위기와 뉴스의 품질



**이광재 부위원장**  
(경기중재부,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요즘 CEO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정치인, 대학생들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IT 제품이 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폰이다. 그 열기는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될 때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들은 이 기기를 통해서 이메일, 인터넷 검색은 물론, 스케줄 관리, 뉴스보기, 트위터, 사진촬영 등을 한다고 한다. 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기기가 갖고 있는 즉시성과 통합성 때문일 것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요술방망이처럼 즉시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는 인간의 이 즉시성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꾸준히 발전해왔다.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상, 즉 뉴스를 더 빨리 전해 주려고 심혈을 기울여왔다. 언론매체가 전해주는 뉴스는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나 루머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제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속도 경쟁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보도 생기고, 본의 아니게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한다. 언론사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론사를 믿고 어느 신문, 어느 방송에서 본 뉴스 내용을 주고받으며 세상 얘기를 풀어간다.

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산업계에서는 경영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다. 주원인은 수용자수 감소에 따른 수익부진이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뉴미디어에게 수용자를 빼앗기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뉴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수용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다. 그들의 뉴스 욕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적 소득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 등은 언론매체를 더 가까이 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위기는 한정된 규모의 시장에 너무나 많은 매체가 등장하여 서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시대 변화에 뒤처진 메뉴에 식상한 수용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읽지 못한 언론매체 자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매체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매체 수는 그 통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신생 매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장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 매체들이 모두 정상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지 궁금하다. 경영상태가 취약한 언론일 수록 수준이 낮은 기사를 만들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무리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제되지 않은 뉴스를 생산해 내는 것은 언론매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수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한때 "언론은 바위이고, 수용자는 달걀"로 비유된 시절이 있었다. 바위를 향해 달걀을 아무리 많이 던져 보아도 바위는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바위도 깨진다. 그만큼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언론은 깨달아야 한다. 조정·중재 당사자로 우리 위원회에 나오는 일부 언론인들은 아직도 바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 경영의 위기가 뉴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까봐 걱정스럽다. 수준 높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매체가 많아질 때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사회도 밝아지고, 언론기업도 번창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가 언론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유언론'도 '풀뿌리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양질의 뉴스는 투자한 만큼 생산된다. 우수한 인력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외화 내빈의 뉴미디어는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영양가 높은 내용물이 담겨질 때 뉴미디어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값싼 인력으로 우수한 뉴스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

# 아내의 빈 자리

일전에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던 아버지의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입원기간은 미정. 평소에 소식이 뜸하던 형제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쳤다.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내려가기로 하고 조를 편성했다. 제일 먼저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전업주부 4년차인 집사람. 발병 당시에도 아내가 간호와 수발을 도맡았던지라 내심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정작 문제는 아들놈이었다. 내가 알아서 밥 먹여 학교 잘 보낼 터이니 걱정 말고 수고 좀 해달라고 큰소리는 쳤지만, 나아말로 결혼 11년차에 접어든, 이미 완전히 자생력을 상실한 이른바 ‘간 큰 남자’ 아니었던가.

첫날, 출근하면서 ‘반차를 내놓았으니 있다 보자’ 고 했더니 아들놈이 이마 주름에 날을 세운다.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이미 나름대로 놀 스케줄을 뽀뽀하게 짜놓은 것이다. 아빠가 일찍 올 필요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 그러면 말고 뭐...

반차를 취소하고 정시 퇴근하여 바로 집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아이와 아내가 교대로 전화를 해댔다. 평소에 나를 얼마나 안 믿으면 이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집에 도착했더니 아이는 친구랑 놀다가 넘어졌다며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친구네 엄마가 ‘많이 아플 텐데 잘 참는다’고 했으며 자랑이다. 반창고를 열어보니 벗겨진 부위가 제법 넓은 것이 꽤나 아팠을 것 같다. 나를 엄마가 없어도 선전하고 있다는 듯 호기를 부린다.

저녁을 먹는데 아들놈이 문득 엄마가 없으니 많이 불편하다고 한다.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불편하다는 말로 커버하려는 기색이다. “그래, 엄마의 빈 자리가 크다 그치? 너 캠프에 가고 없을 때 엄마 아빠도 그랬다. 네가 없으니까 무지 허전하더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여기까지만 할 걸 그랬다. “지난 번 아빠가 멀리 가고 없었을 때 엄마랑 너도 그랬잖네?” 했더니 이 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한 칼 내지른다. “엄마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방심하고 들어가다 회심의 한 방을 허용했다. 나는 재빨리 자세를 가다듬으며 “니 밥 아직 반도 안 줄었다이. 밥 빨리 안 먹으래!” 자못 큰 소리를 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이 앞에서 아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 티를 냈으면 하는 생각에 기분이 씁쓸해졌다.

모처럼 설거지를 하고 돌이서 애완용 생쥐 집 앞에 나란히 드러누워 그것들이 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빨리 잠들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이속해질수록 녀석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마침내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아든 녀석,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유괴범에게 갇힌 신세라도 되는 양 전화통을 붙잡고 서럽게 운다. 알미운 형의 박대를 곳곳이 이겨내다 구세주라도 만난 양. 나를 열심히 돌보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바뀌주는 전화를 받아들였더니 ‘애 좀 잘 달래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다.

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침대에 눕힌 다음 모처럼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었지만 읽다 보니 재미가 있었다. 아이는 계속 들썩이며 울었지만 나는 열심히 읽었다. 중간에 아이는 ‘꿩 대신 닭’이라는 심정인 듯 내 팔을 안으면서 오늘 밤은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제안했다. 안락한 밤 시간을 위하여 전략적 동맹을 제안하는 그의 얼굴은 체념한 듯 약간 비감했다. 알겠노라고 대답해놓고 나는 책을 끝까지 읽었다. 돌아보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래 꿩이면 어쩔고 닭이면 어떻냐. 난 꿩보다 닭이 더 좋더라.



김주웅  
(정책연구팀 차장)

# 알 권리와 인권, 그 말의 성찬에 관하여



양재규(조사팀장, 변호사)

홍악법의 '얼굴' 공개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이 일어날 기미다. 공개를 지지하는 쪽에서 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다. 반대하는 쪽은 범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한다. 논거는 다 그럴듯한데 한 걸음 다가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우선, 국민의 알권리. 얼굴 공개와 관련해 과연 우리에게 홍악법의 생김새를 볼 권리가 있을까? 솔직히 희대의 살인마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일까 궁금하다. 지난 번 강호순처럼 잘 생겼으면 잘 생긴 대로, 흉측하게 생겼다면 못 생긴 대로 뉴스거리가 될 만하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호기심'이지 '알 권리'라 부를 수는 없다.

알 권리는 알고 싶은 권리가 아니라 알아야 할 권리다. 그저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 보도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말의 성찬이다.

둘째, 공익과 범죄예방 효과. 도대체 홍악법의 얼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공익이라면 공익이겠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이 만천하에 알려질 테니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얼굴 공개를 통해 과연 몇 사람에게나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의문이다.

셋째,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얼굴 공개 반대 논거로 곧장 사용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예를 들어, 얼굴이 동의도 없이 공개되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연예인에게는 인권이 없을까? 보도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을 긋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넷째,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게다가, 단정적 어투의 보도를 자제하라는 것이지 얼굴 공개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 심본 양보하여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얼굴 공개가 금지된다면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의 얼굴은 공개해도 좋다는 것인가?

결국, 유일한 방법은 대책점에 위치한 공익과 인권 사이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균형점을 잡는 것이다. 아직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공개수사의 필요성이 클 때 인권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공익 앞에 후퇴한다. 그 결과, 사진이 실린 현상수배가 가능하다. 범인이 체포된 후에는 이름의 공개로 충분하다. 수사나 재판진행 상황이 보도되어야 하는데, 이때 뭔가 사건을 특정할 최소한의 사항이 필요한 것이다. 유명철 사건, 정남규 사건, 강호순 사건, 그리고 김길태 사건이라 부를 수 있게 말이다.



# 아카데미와 캐서린 비글로



▲ 〈허트 로커〉 촬영장의 캐서린 비글로 감독

아카데미 시상식에 쏠리는 관심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아카데미는 어디까지나 미국식 윤리와 미(美)의 기준에 맞으면서도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를 골라 상을 준다. 영화 예술의 한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매년 2월~3월 열리는 아카데미가 전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영화계에서 할리우드가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 덕이다. 아울러 시상식 특유의 화려한 볼거리와 극적 재미도 만만치 않다.

3월 7일(현지시간) 열린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극적인 순간이 연출됐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 부인의 저예산 영화'와 '전 남편의 역대 최고액 블록버스터'의 대결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다. 승리는 전자에게 돌아갔다.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허트 로커〉는 후보에 오른 9개 부문 중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가져갔다. 반면 나란히 최다 부문인 9개 후보에 오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는 촬영상, 미술상 등 비중이 적은 기술 부문 3개 트로피를 모으는데 그쳤다. 비글로와 카메론은 1989부터 91년까지 부부 사이였다.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 폭발물 처리반 대원의 이야기를 다룬 〈허트 로커〉는 여느 전쟁 영화처럼 반전의 메시지를 내세우는 대신, '직업인으로서의 군인'에 충실한 주인공들을 그린다. 군인들은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폭발물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뿐이다. 스펙터클한 장면은 없지만, 폭탄 처리 장면의 긴장감이 대단하다는 평이다. 미국 영화로서는 저예산인 1,500만 달

러(약 17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으며,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2,100만 달러(약 240억원)를 벌어들여 간신히 손해를 면한 정도다. 한국에선 상반기중 공개하기로 하고 개봉 시기를 조율 중이다.



▲ 〈허트 로커〉의 한 장면

반면 〈아바타〉는 4억 달러(약 4,500억원)의 제작비를 들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26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카메론 감독의 전작이자 역대 전세계 흥행 1위였던 〈타이타닉〉을 밀어낸 수치다. 〈아바타〉는 〈허트 로커〉에 비해 제작비는 27배, 수익은 124배에 달하는 셈이다. 〈허트 로커〉와 〈아바타〉는 '다윗과 골리앗'이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 결과는 비글로 감독 개인에게도 의미가 깊다. 우선 비글로는 아카데미 시상식 82년 역사상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카데미는 리나 베르트물러, 제인 캠피언, 소피아 코폴라 등 3명의 여성을 감독상 후보로 올렸으나, 상을 받은 건 비글로가 처음이었다.

182cm의 장신인 비글로는 액션, 호러 등에서 두각을 발휘해온 감독이었다. 여느 여성 감독이 주로 멜로, 코미디 등을 장기로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비글로는 뱀파이어 영화 〈죽음의 키스〉(1987)로 두각을 나타냈고, 패트릭 스웨이지와 키에누 리브스가 출연한 〈폭풍 속으로〉(1991)의 흥행과 함께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후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스트레인지 데이스〉(1995)와 〈K-19〉(2002)의 흥행 실패로 비글로는 할리우드에서 잊혀져가는 이름이 됐다. 특히 〈K-19〉는 1억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전세계적으로 6500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다. 비글로는 반강제적인 은퇴 위기에 놓였다.

〈허트 로커〉 역시 간신히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비글로는 '개봉만 하면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흥행 결과는 역시 신통치 않았으나, 노력은 6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로 보답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비글로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카메론 감독은 〈허트 로커〉의 작품상 수상 발표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축하를 보냈다. 최초의 여성 감독상 수상 기록과 함께 비글로는 할리우드의 '우리 천장'을 갠 인물로 기록될 듯하다. (경향신문 기자)

# 조정불성립결정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듯, 조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양측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 조정을 거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중재부의 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중재부의 결정에 의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양측은 서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히고자 애를 씁니다. 중재부도 증거조사 등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과연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만, 사건의 양상이 난마처럼 꼬여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 이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어떠한 결론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옳다고 선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소송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법정은 이 사건을 조사하여 끝내 잘못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궁극적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진실 규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절차는 최대 21일 이내에 종료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언론중재법 제21조 제3항) 해당 중재부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홍보팀)

#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 트위터, 140자의 매직

이성규 지음 | 책보세 | 192페이지



김연아 선수의 가입과 이명박 대통령의 200자 만들기 발언으로 화제가 된 트위터 열풍! 블로그 미디어기업 '태터 앤 미디어'의 미디어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과거 5년간의 기자 생활과 포털사 미디어 기획자를 거치면서 가져온 시민 저널리즘과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민을 이 책에 담았다.

트위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앞으로 트위터가 아이폰 등 스마트폰 확산과 연계돼 초래할 수 있는 선거 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부문도 주목할 만하다.

"트위터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트위터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더 많은 공을 기울였다. 트위터라는 갑자기 떠오른 '듣보잡' 해외 서비스가 지닌 정치, 사회, 경제적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참여하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엮으려고 노력했다"

"트위터는 '사회적 소통의 동맥경화'를 치유해 여론과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의체계를 작동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본문 중에서)

### ▶ '트위터(TWITTER)'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이자 미니 블로그 형태의 서비스. 일반적으로 한줄 블로그라고 불리며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되어 있다. 간단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거나 메모나 의견을 쉽고 편하게 남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3차 개정판)

정인숙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397페이지



방송산업과 정책의 구조와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미디어 융합은 방송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IPTV, 데이터방송, 디지털TV 전환, 한미FTA와 방송시장 개방까지 급변하는 방송 산업과 정책 이슈의 핵심을 짚어낸다.

방송 산업의 규제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2008년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소개하며 '국내외 방송정책기구'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달라진 방송법과 '매체별 산업구조와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정책연구팀)

### 중앙일보 서명수 고충처리인

# “독자와 신문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 서명수 중앙일보 고충처리인

중앙일보는 독자들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불편 불만 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명수 고충처리인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전화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하루에 약 50건 가량의 독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앙일보 불편 불만 처리센터는 다른 신문사들의 독자센터가 대개 독자들의 구독에 관한 사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순수하게 기사 내용과 관련한 불만사항이나 기사 제보 등 독자들과의 피드백에 관한 사항만을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사와 관련된 독자들의 전화는 취재기자 등 편집국의 제작인력과는 절대로 바로 연결되지 않으며, 불편 불만 처리센터에서 모두 처리된다는 사실이다.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독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접수하기 위한 조치다.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인은 독자와 싸울 수 없죠. 독자들 편에서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만일 수시로 걸려오는 독자들의 전화를 취재기자들에게 바로 연결한다면 신문 제작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명수 고충처리인의 설명이다.

고충처리인은 독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2주에 한 번 개최되는 제작간담회를 통해 제작부서에 전달한다. 제작간담회에는 편집인을 비롯한 간부급들이 출석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정정보도 등 기사의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작간담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조치

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고충처리인의 임무는 독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 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문사와 독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피해에 대한 불만제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독자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서명수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사로 인해 독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호소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이 일방통행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문 제작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충처리인의 주된 업무는 기사로 인해 독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사 제보부터 시작해 제작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다양한 소통이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충처리인은 독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신문의 화두는 독자의 신뢰 확보입니다. 고충처리인을 통해 독자와의 간격을 줄이고 소통을 이뤄낸다는 측면에서 좋은 신문을 만드는 일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독자와 신문사를 연결해 주는 다리같은 것이니까요.” 2006년부터 꾸준히 독자와 호흡해 오고 있는 서명수 고충처리인의 말이다. <글: 여윤규 차장 / 사진: 김민정 (이상 홍보팀)>



▲ 중앙일보 사옥에 있는 배달 소년 동상

##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29주년



▲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1981)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는 3월 31일로 창립 29주년을 맞는다. 중재위원회는 31일 기념식을 갖고 창립 30주년을 눈앞에 둔 성년(成年) 위원회의 생일을 축하할 예정이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중재위원회는 '반론권'이라는 개념이 언론인들에게 마저 생소하게 느껴졌던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96년 직권 조정 결정권을 도입하고 2005년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꾸준히 강화되었으며, 같은 해 최초의 언론피해 구제 단일법인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언론피해 구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가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구제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설립 당시 39명에 불과했던 중재위원이 85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1천건 이상의 조정·중재 사건을 처리하며 크게 성장한 중재위원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론피해 구제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피해구제 보도문의 크기 및 내용 개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서른 살을 앞두고 외형에 어울리는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을 기대한다.

## 네이버 지식iN에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www.naver.com) '지식iN' 서비스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 법률상담 콘텐츠 제공 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일반 네티즌에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구제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네티즌들은 언론분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인터넷상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포털을 통한 뉴스의 제공과 이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됐다는 점에 있어 이번 서비스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지난 2월 네이트(www.nate.com)와도 지식상담 콘텐츠 제공 협약을 맺고 상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본지 2월호 12면 참조)

중재위원회는 향후 네이버 '지식iN'과 네이트 'Q&A'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언론중재위원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가 지난 1일자로 일부 개편됐다. 주요 도서관 링크사이트 및 원문복사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고, 유관기관의 세미나, 토론회 행사 개최 정보와 언론·법학 학술단체의 발간물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메뉴도 신설되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프레젠테이션 6층에 있는 자료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자료를 전면 배치하고, 신착자료를 따로 배치하는 등 서가 배치를 재조정했다.

## 언론중재위원회 인사 (2010년 3월 8일자)

- 〈전보〉 △ 연구본부장 오광건
- △ 운영본부장 심영진
- △ 정책연구팀장 정희성
- △ 기획팀장 손정배
- △ 대전사무소장 장원상

# 2월말 현재 조정신청 507건

##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2월까지 모두 50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107건, 조정결정 45건(동의 25건, 이의 6건, 계속 14건), 조정불성립결정 30건, 기각 46건, 취하 276건, 계류 3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8.2%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111건, 신문 105, 방송 19건, 뉴스통신 5건, 잡지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2월까지 20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19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14건, 반론청구 6건으로 나타났다.

###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월	정정	268	52	17	3	7	18	35		135(91)	1	71.1
	반론	50	16	6	1		2	9		14(13)	2	89.7
	추후	3	1			7				2(2)		100.0
	손배	186	38	2	2		10	2		125(109)		84.2
합	계	507	107	25	6	14	30	46		276(215)	3	78.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 결정	중재 화해결정	기각
1월 ~ 2월	정정	14	13		1
	반론	6	6		
	추후				
	손배				
합	계	20	19		1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월 22일 열린 2010년도 제2차 회의에서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11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피의자 신원공개 9건, 살인사건 피해자 신원공개 1건, 자살자 신원공개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인터넷신문 각 5건, 뉴스통신 1건이다.

##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2월까지 394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안내 28건, 타기관 안내 26건, 법적절차 안내 13건, 재상담 예정 12건, 자체종결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263건, 일간신문 189건, 인터넷신문 181건, 주간신문 76건, 방송 71건, 뉴스통신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 18일 SK커뮤니케이션즈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2월 한 달 동안 3차례의 언론 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는 언론사 2건, 교육연수기관 1건이다

# COMMITTEEMEN



신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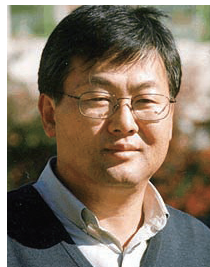
## 로스쿨 학생들 봉사활동 격려

권 성 위원장은 2월 25일 서울 성북동 북정마을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법학대학원(로스쿨) 대표자협의회 학생 150여명을 격려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총재 이윤구) 지원으로 실시된 이날 봉사활동에서 권 위원장은 학생들을 격려한 후 도배와 연탄배달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 하이닉스 반도체 사외이사 유임

한부환 위원(서울제6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5일 열린 하이닉스 반도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 유임되었다.



## 강원대 디지털 미디어 센터장으로 임명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12일 강원대 보직교수 인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선임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19일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 영동 공무원 인재양성소 향부숙(鄉富塾) 개강

강형기 위원(충북중재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이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 지방자치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공무원을 위한 글방인 향부숙(鄉富塾)의 제3기 과정을 시작했다.



##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토론회 참여

김덕무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개최한 "2010년 민주당 광주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이타현 변호사회와 자매결연식 참석

권 범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은 2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센츄리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지방변호사회와 오이타현 변호사회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했다.



## 경기고법 유치 범도민 추진위 공동대표 선임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15일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추진위는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입법안 통과를 위해 서면운동,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창원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위촉

남부희 위원(경남중재부,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은 지난 18일 창원상공회의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 신청절차

###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mailto: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http://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05)





#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